

The Friedrich-Ebert-Stiftung

The Friedrich-Ebert-Stiftung was founded in 1925 as a political legacy of Germany’s first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Friedrich Ebert. Ebert, a Social Democrat from a humble crafts background who had risen to hold the highest political office in his country, advocated the development of parliamentary democracy and was committed to a politics geared to social balance and compromise. He had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to serve the following aims:

- Furthering political and social education of individuals from all walks of life in the spirit of democracy and pluralism,
- Facilitating access to university education and research for gifted young people by providing scholarships,
-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The Friedrich-Ebert-Stiftung, which was banned by the Nazis in 1933 and re-established in 1947, continues today to pursue these aims in all its extensive activities. As a private non-profit institution, it is committed to the ideas and basic values of social democracy.

FES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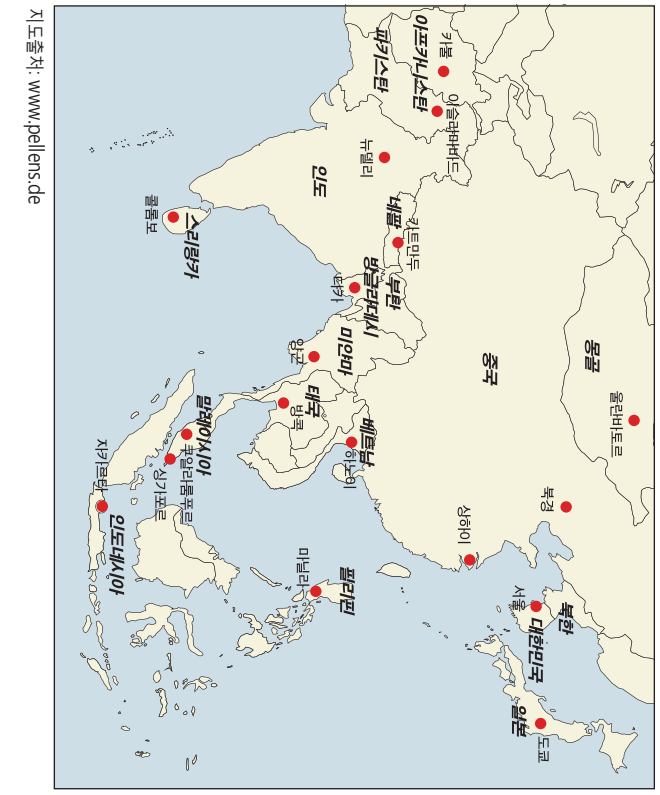
The collaboration between Korean organizations and the Friedrich-Ebert-Stiftung began in the late 1960s with the opening of an office in Seoul. While the form of partnership has changed over the years, the basic aims and objectives have remained the same.

In Korea we want to foster dialogue between Korean and German institutions towards developing future-oriented policies, and towards identifying the most appropriat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Germany, Korea and Europe, and Asia and Europe. The Foundation wants to contribute to a social and pluralistic democracy and the adoption of socially balanced economic policies as a way to sustainable development. Furthermore, FES wants contribute to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s a whole.

Mostly in cooperation with partner institutions, FES Korea is organizing conferences, workshops and discussions, conducting research and issuing articles and publication in four major areas: German unification, inter-Korean dialogue, South Korean civil society, and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as well as the “economy of tomorrow”.

Activity areas

- **Sharing the experiences of German unification**
FES cooperates with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academia on “learning from success”, as well as the pitfalls of German unification.
- **Promoting inter-Korean dialogue and conducting trust-building activities involving the DPRK**
In order to promote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e Foundation supports research and dialogue projects within South Korea as well as multilateral programs. FES Korea also contributes to academic exchanges and exchanges of ideas on Germany-DPRK as well as EU-DPRK relations.
- **Strengthening South Korean civil society in order to promote participatory democracy, human rights and civil liberties**
For this purpose, FES Korea supports academic and civil society protagonists and NGOs.
- **Initiating political, academic and trade-union dialogue between Germany/Europe and Korea on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and the “economy of tomorrow”**
FES Korea aspires to foster a sustainable and socially just welfare state in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the “economy of tomorrow”, combining innovation, social justice and ecological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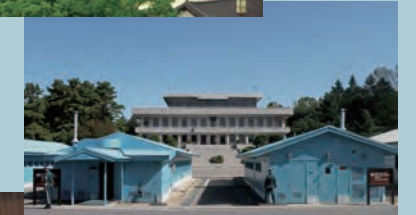


FES 아시아 지역사무소

• 연락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서울시 중로구 을지로 88 (은니동 삼환빌딩) 1101호
 (우) 110-742
 전화: 02-745-2648/9
 팩스: 02-745-6684
 E-mail: info@fes-korea.org
 www.fes-korea.org
 국제 활동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재단 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fes.de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의 아태 지역국은 17개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독일 파견 직원과 현지 직원이 일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FES)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 최초 민주적으로 선출된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유지에 따라 1925년 설립되었다.

하층 수공업자 출신으로 훗날 독일에서 가장 높은 정치적 직위에 오른 사회민주주의 정치가인 에버트는 정치적 대립 속에서 겪은 뼈아픈 체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정치 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정신에 따라 모든 계층의 정치적, 사회적 교육 진흥
- 장학 사업을 통해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대학 교육 및 연구 기회 부여
- 국제적 이해 증진과 협력에 기여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1933년 나치 정권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1947년에 다시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광범위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비영리 공익기관으로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기본 가치를 구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본부는 본과 베를린 두 곳에 있으며, 전세계에 100여 개 사무소가 있다.



연혁

- 1925 2월 28일 사회민주주의자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서거
- 1925 3월 2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설립
설립 목적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 유지에 따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모든 계층의 독일인에게 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재능 있는 젊은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독일과 다른 국가들 간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이다.
- 1933 나치 정권에 의해 활동 금지
- 1946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재설립
- 1956 첫 번째 성인정치교육원 설립
- 1963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개발협력 사업 시작
- 1969 본(Bonn)에 사회민주주의 자료보관소 및 FES 도서관 개관
- 1990 독일 신연방주와 중동부 유럽 국가에 FES 사무소 설치
- 1999 베를린 회의센터(Conference Center) 개장
- 현재 독일 최초 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민간 비영리 기관이며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한다.

FES 한국사무소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1960년대 말 한국사무소를 설치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활동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에버트 재단이 추구하는 기본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즉, 한국 사회가 다원적 민주주의 속에서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에버트 재단은 앞으로도 한국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국과 독일 간 대화를 촉진하고 한국과 유럽 국가,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국가 간에도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국제적 협력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것이 정부 주도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빌리 브란트-

FES 한국사무소 주요 활동 영역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한국사무소는 한국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음 분야의 연구 사업과 학술 회의,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한 논문 및 출판물을 발간하고 있다.

• 독일 통일에 관한 경험 공유

FES 한국사무소는 독일 통일에 대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독일 통일의 성공 사례뿐 아니라 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에서도 교훈을 얻고자 학계, 연구 기관 및 한국의 여러 정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독일 사례를 한국 통일의 본보기로 삼을 수는 없지만 독일 통일을 최근 일어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한 대화 추진 및 북한이 참여하는 신뢰 구축 활동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유럽 비정부 기관으로서, 남북한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와 협력은 이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 간 대화와 진지한 교류 협력을 통해서만 향상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에 따라 FES 한국사무소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연구 사업 및 대화 프로그램뿐 아니라 남북한과 동북아시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다자간 대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북한, 유럽연합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양쪽 정치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과 북한의 학술 교류도 실시하고 있다.



•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및 시민의 자유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 강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전세계 민주주의 운동을 고무했고, 지난 20년간 한국 민주주의는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러 서구 유럽 국가의 민주주의에서 보듯이 민주화 과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FES 한국사무소는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를 이루고 인권 및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학계 및 시민 사회 주요 인사들과 시민단체를 지원한다.

• '복지국가의 미래'와 '내일의 경제'에 관한 독일 및 유럽과 한국 간 정계, 학계, 노동조합의 대화 제안

2008-2009년 금융과 경제 위기 및 미국과 유로존의 지속적인 채무 위기는 경제와 재정 정책의 신자유주의 및 시장근본주의 모델이 실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FES 한국사무소는 사회민주주의 기관으로서, 한국을 지속 가능한 사회복지국가로 발전시키고, 혁신과 사회 정의 및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과 결합한 '내일의 경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화와 연구 사업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장학 프로그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독일 내 학부 및 박사 과정 장학금
- 학자 및 학문적 배경을 지닌 활동가를 위한 연구 장학금
- 글로벌 노동 대학(GLU) 장학금